

News

85兆로 불어난 코로나 대출 유예금...리스크 우려 vs. 연착륙 지원

파이낸셜뉴스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코로나19 대출 원리금 유예(만기연장 · 원금상환유예 · 이자납입유예) 규모는 약 85조. 1차 연장 때(20년 8월)보다 136% 급증 당초 유예 종료일은 지난해 9월 30일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정부는 대출 원리금 유예 조치를 6개월씩 두 차례 연장

은행 디지털 전환 성적표...하나가 신한 · KB에 앞섰다

헤럴드경제

은행권의 디지털 전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리딩뱅크를 다투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보다 하나은행이 더 나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중은행 가운데 비대면 채널의 여수신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 하나은행. 지난달 기준 하나은행의 비대면 수신 비중은 74.9%고, 여신은 86.9%

"1%p 더 준다고 적금 드나"...대출금리 올린 은행, 예금금리 낮췄다

매일경제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예금 금리는 반대로 내려 금융 소비자들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 은행 조달비용이 늘지 않았음에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압박 등으로 우대금리를 조정했기 때문

JB금융 "JB우리캐피탈 주식 500억원 추가획득"

연합인포맥스

JB금융지주가 할부금융업 자회사인 JB우리캐피탈 주식 747만1천608주를 약 500억원에 추가 획득한다고 27일 공시 주식 취득 예정일은 다음달 6일이다.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 이로써 JB금융의 JB우리캐피탈 지분율은 100%

삼성증권 IRP 수수료 면제에... 미래에셋 맞불

디지털타임스

삼성증권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신규 고객 수수료 면제 결정에 미래에셋증권이 맞불을 놔다. 미래에셋증권은 삼성증권과 동일하게 IRP 운용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하면서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에 대해서도 수수료 면제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힘

보험 IFRS17 · K-ICS 도입 연장에 '내부모형' 승인도 잠깐

비즈니스위치

보험 IFRS17과 (K-ICS) 도입이 2023년으로 미뤄지면서 개별 보험사에 맞는 리스크를 평가해 지급여력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내부모형 승인절차도 미뤄지고 있다. 본래 금융당국은 2021년 도입을 대비해 미리 장기보험손해리스크 관련 내부모형 승인절차를 진행했지만 제도 도입이 미뤄지면서 아직 표준모형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

'SK증권 · KTB투자증권' 저축은행 품는다...기대 효과는?

아시아투데이

중소형 증권사들이 사업 다각화에 기반한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목적으로 저축은행 지분을 인수 중. 앞서 대신증권, 키움증권도 저축은행 인수를 통해 성장한 선례가 있음 SK증권은 엠에스상호저축은행 지분 93.57% 인수 결정 뒤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위한 절차를 준비. KTB투자증권 또한 유진에스비홀딩스 지분 30% 인수로 최대주주가 된다.

실손보험 자동청구 병원만 나홀로 반대...국회사무처 "소비자 권리 행사 꼭 필요"

헤럴드경제

소비자단체와 보험업계에 이어 국회도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면서 관련 법안 처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총 4건 발의 하지만 의료계는 "보험은 환자와 보험사, 즉 민간 간의 계약인데 병원이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는 건 맞지 않고, 민감한 의료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